

물의 순환

글 | 송지혜

그림 | 박은현

글 | 송지혜

그림 | 박은현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어요. 나무와 풀은 물을 빨아들여 무럭무럭
자라나요. 목마른 동물도 물이 고인 곳에 모여들지요.



비는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땅 위를 흐르던 빗물이 어느덧 강과 바다에 도착했어요!



강물이나 바닷물이 햇빛을 받고 뜨거워지면 수증기로 변해요. 수증기는 아주 가벼워서 하늘로 날아가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무척 추워지기 때문에 수증기는 식어서 다시 작은 물방울이 되지요. 이런 물방울들이 많이 모이면 구름이 된답니다.



구름은 바람을 타고 아주
멀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서로
뭉쳐 큰 구름이 되기도 해요.
구름 속의 물방울들은 서로
부딪히며 달라붙어요. 그러다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비랍니다!



겨울이 되어 날이 추워지면 구름
속 물방울이 뽁뽁 얼어붙어요.
그러면 눈이 되어 떨어지지요.
눈은 내리다가도 따뜻해지면
녹아서 비가 되어요.



빗방울은 땅으로 떨어지면서 하늘에 떠 있는 먼지나 나쁜 물질을
씻어 내려요. 비가 내린 후에 하늘이 맑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물을 이용해 아주 많은 일을 해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목욕도 하지요. 더러워진 물은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바다로 흘러 보내요.



물은 하늘, 땅 그리고 바다를 오가며 모두에게 도움을 주어요.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쓰고 돌려주어야겠지요? 돌고 돌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물의 순환”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